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1월 19일(주일) 제1172호

풍성한 은혜, 넘치는 감사 나누는 행복, 커지는 사랑

오늘(19일)은 이웃과 은혜 나누는 추수감사주일
온누리복지재단, 미자립교회, 이웃들에게 헌물 전달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
르세~♫”(찬송가 587장)

오늘(19일)은 하나님이 한 해 동
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추수감
사주일이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
고, 나누는 행복과 커지는 사랑을
만끽하는 뜻깊은 절기다.

온누리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10개 캠퍼스 공동체, 순, 다락
방, 부서별로 쌀과 과일 등의 추수
감사절 헌물을 모았다.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모은 헌
물들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과 국내 미자립교회, 교회 주
변에 거주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
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오늘 오전 9시
까지 헌물을 모집한다.

추수감사절은 1621년 미국에서
기원했다. 당시 신앙박해를 받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
주해서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한 다음 개최한
축제가 추수감사
절의 기원이 됐다.

한국 교회에서는 1904년 처음으
로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1914년부
터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
사절로 지정해서 지켜오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온누리교회 성도 산마루교회로 파송

오후 5시, 노숙자 위한 목욕빨래방 오픈예배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가 만나
면 노숙자들이 행복해진다. 하나님
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
이다. 오늘(19일) 이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 열매가 맺힌다.

첫 번째 열매는 온누리교회 성도
80여 명이 산마루교회로 이적 및 봉

자사로 파송된다.

오늘 서빙고 온누리교회 3부 예배
에서 산마루교회 헌신자 파송식이
거행된다. 오늘 파송되는 성도들은
산마루교회에서 사랑의 농장, 해맞
이대학, 목욕빨래방 같은 노숙인을
위한 사역뿐만 아니라 산마루교회

예배, 주일학교, 영성수련 등의 사역
을 섬기게 된다.

두 번째 열매는 노숙인을 위한 목
욕빨래방이 오픈한다. 오늘 오후 5
시 마포구 공덕동 산마루교회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목욕빨래방 오픈
예배를 드린다. 이 뜻깊은 자리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든
지 참석할 수 있다.

노숙인들을 위한 목욕빨래방은 산

마루교회가 위치한 상가에 있다. 노
숙인들이 목욕과 빨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인적인 치유를 도
모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샤워부
스 3개, 대형세탁기 2대, 건조기, 요가
매트, 상담실 등이 있다. 노숙인들은
2시간 코스로 목욕빨래방을 이용한
다. 샤워 30분, 필라테스 30분, 상담 1
시간 순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74

문의: 02-3273-0891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한동대 학생들 무사합니다”

‘훈련’과 ‘공동체성’ 영향
후원과 중보기도 절실

지난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
생한 진도 5.4 지진으로 한동대학교
도 건물이 부서지는 등 큰 피해를 입
었지만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한동대학교와 학생들의 대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 지진 당시 수업 중이던 한동
대학교 학생 4천 명은 벽돌이 쏟아
지는 와중에도 10분 만에 대피를 완
료했다. 학생 2명이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 비
결은 ‘훈련’과 ‘공동체성’이었다.

한동대학교는 매학기 화재 대피훈
련을 하고 있고, 경주 지진 이후부터
는 지진대피 훈련을 해오고 있다. 그
덕분에 한동대학교 재학생들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 집결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고, 신입생이나 당황한 일
부 학생들도 집결부 학생들의 인솔
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
서 쌓은 공동체성도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공동체리더십 훈련을
통해 익힌 방법으로 교수와 학생들
이 팀별로 팀원들의 소재를 파악했
고, 매뉴얼대로 장갑, 방한용 비닐옷,
긴급의약품 등이 담긴 응급키트와
학교에서 보유 중인 모포, 담요 등을
모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토
목구조과 교수 등의 자문을 얻어 교
직원과 학생들이 순번대로 기숙사에
들어가 개인소지품을 챙겨 나왔다.
한동대는 오늘(19일)까지 임시 휴강
조치를 내린 상태이고, 재학생 4천여
명은 무사히 귀가한 상태다.

지금 한동대학교와 포항시에는 지
진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온 누리가 함께
울어줬으면 좋겠다.

문의: 010-3241-5015

차세대, 저금통 회수

오늘 차세대사역본부가 아프리카
르완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공간 ‘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
센터’ 건립을 위한 저금통을 회수한
다. 차세대사역본부는 지난 9월 17일
저금통을 배부했고,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그 저금통을 회수한다.

문의: 02-570-7548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나누는 기쁨, 복음 전하는 감동, 특별한 은혜

지난 11일(토) 한강공원에서 개막된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그 이름처럼 참가자 전원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완주했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는 산마루교회 노숙인, 믿지 않는 가족, 휠체어를 타고 완주한 성도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노숙인들과 함께 걷고 뛴 대회는 분명 천국 마라톤 대회였다. 나누는 기쁨, 복음 전하는 감동, 아주 특별한 은혜까지 더해진 세상에 둘도 없는 천국잔치였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을 완주한 성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숙인들과 함께 걷고 뛰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함성소리와 함께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려 나갔다. 불쑥 찾아온 강추위도 성도들의 나눔을 향한 뜨거운 열

정을 막지 못했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의 입가에는 미소가 만발했다. 그들을 미소 짓게 한 이유는 나누는 기쁨, 복음 전하는 감동, 아주 특별한 은혜였다.

이번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이들은 후원으로 동참했다. 그렇게 모인 참가비 및 후원금이 무려 2천만 원이나 된다. 산마루교회 노숙인 목욕빨래방과 자활공동체를 후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함께 나누는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감동도 있었다. 전은주 성도(성동광진공동체)는 어머니 김정옥씨와 함께 5km 걷기 코스를 완주했다. 이번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전은주 성도의 어머니 김정옥씨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김정옥씨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절대로 한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며 전은주 성도가 교회 다니는 것을 지독하게도 반대했었다. 전은주 성도가 고등학생 때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은주 성도는 어머니를 전도하겠다는 다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이다.

그렇게 강경했던 어머니가 이번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서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지금껏 수없이 기도하고 전도해도 끄떡없던 어머니가 거북이탈을 쓴 자매와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밝게 웃으며 스티커를 붙여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너희 교회가 사랑이 참 많다. 사람들이 어쩔 이렇게 밝니?”

어머니의 굳었던 마음이 녹는 것을 확인한 전은주 성도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어머니가 거북이처럼 천천히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 전은주 성도에게는 이번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장(場)이기도 했다. 전은주 성도는 2010년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그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정확한 병명이 정해지지 않아 오랜 기간 투병해야 했다. 그 시간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

그런 그녀가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피눈물 나는 재활치료 끝에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에게 이번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제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예요.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순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나눔과 사랑, 배려와 관심과 더불어 마라톤 대회 참가자 전원이 완주한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의 숨은 주인공이 또 있었다. 160명의 대학부 학생들과 마포공동체 봉사자들도. 대학부 학생들은 마라톤 대회 접수 및 안내, 식사 정리 등을, 마포공동체는 바자회를 섬겼다. 불쑥 찾아온 추위에 고될 법한데 그 누구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봉사자 이은 자매(하늘대학부)는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였다”고 고백했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을 마치고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담임)

11월 11일 쾌청하게 맑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실은 믿던 바대로다. 한강변은 역새와 갈대가 숲길을 만들고, 바람은 적당한 습도 속에 걷고 달리라고 고요한 중에 춤을 춘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오묘하시다.

건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꿈꾸던 산업화 시대의 인간들이 이제 걷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역시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들이다! 생각의 깊이는 자기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심화된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된다. 인간은 견도록 지음 받았기에 기계에 의지하고 걷지 않으면 몸도 의식도 인생도 주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걸어야 건강하고, 함께 걸어야 사랑이 자라고, 마침내 사회가 유지된다. 요즘은 걷기가 유행이지만 오늘 우리가 걷는 것은 온누리와 산마루에 임한 십자

가 사랑의 열풍을 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걷고 뛰게 된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 노숙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노숙인을 위한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 사순절 기간이었다. 온누리교회에 설교 초대장을 받아 갔더니 이재훈 목사님께서 노숙인을 위한 목욕 빨래 시설 진행을 물으셨다. ‘노숙인’ 자판 붙으면 모두 민원을 두려워하고 서울시나 철도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없고, 부동산 값은 계속 뛰고, 지역 특성상 토지나 건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임을 토로했다. 이때 그래도 올 가을에는 노숙인들이 목욕하고 빨래할 수 있도록 꼭 하나님께 봉헌하자고 하면서 사랑의 축제를 열자고 제안을 하셨다. 그리하여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을 열게 된 것이다. 게다가 노숙인대학에서도 2012년에 남산에서 거북이 마라톤을 했을 때 큰 호응과 감동이 있었기에 능히 잘되리라 믿었다.

11월 11일 오전 6시부터 노숙 형제자매들은 산마루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 오전 6시 30분 찬양 연습에 들어갔다. 늦는 이가 없었다. 모두가 얇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즐거워했

사랑으로 걷고 달리자, 천국까지! 누우면 안 된다

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아침 작은 예배실에는 찬양의 힘이 넘쳤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표정들이 천진해진다. 해맞이찬양대를 지휘하는 이성민 목사님(감신대 교수)은 온몸을 드러 기뻐하는 것이 역력하다. 산마루교회 차량이 부족해 한서교회(최재선 감리사)에서 승합차 2대를 지원해 주었다. 한 대는 한서교회 장로님이 운전해서 오셨다. 어려운 이웃뿐 아니라 교단도 다른 온누리교회가 함께 하며 큰 후원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런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다.

2000만 광장에 이르러 보니, 사랑의 활기가 넘쳐흘렀다. 120명의 대학생들이 흰옷을 맞추어 입고 전체 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다. 어디서 누가 저런 훈련을 받으며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온누리 젊은이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고 능력이다. 모든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이런 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나는 노숙 형제자매들이 혹시 다투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면 어찌 하나 생각했다. 그래서 찬양대 형제자매들이 찬양 연습할 때 행사 중에 질서를 지키는 일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

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로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산마루서신과 SNS에 “노숙인 100인과 이들을 사랑하는 교우 1,000명이 늦가를 햇살 아래 한강변을 함께 걷고 달렸다”고 우리의 이야기를 올렸다. 많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리고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은 계층과 나이, 그리고 교과, 대형교회 소형교회를 뛰어 넘은 사랑의 일치이며 실천이라고 했다. 반응은 대단했다.

“와우 멋진 행사!”, “멋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수많은 감동의 이모티콘이 붙었다. 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은 “참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사진으로 보아도 힘이 나네요. 이 힘으로 오늘도 강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답글도 남겨주셨다.

나는 늦가를 강변, 이 고난의 땅 한강의 푸른 물결을 보며 달리면서 이렇게 간구했다.

“이 땅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교회와 교회가 손을 잡고 사랑으로 계속 걷고 달리자. 다함께! 늙거나 멈추지 말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누우면 안 된다! 주여 이루어주소서! 할렐루야!”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1~6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선한 일일수록 자원하고, 즐겁게 하고, 모범이 되십시오.”

짐승은 자기가 짐승인 줄 모릅니다. 인간도 짐승의 상태에 가까워지면 그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을 ‘자신만이 즐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교만의 끔찍한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은 교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교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자신 안에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교만에 물들어 버린 자아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자아를 꿰뚫어보고, 철저히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매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교만이 점점 커져서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과 거룩함

조지 맥도널드가 쓴 글에 매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느린 속도로 가라앉다 보면 악마가 되어 버린 지 오래 지난 후에도 여전히 착실한 교인으로 남아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공통점이 가장 많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함이 과연 진실하고 생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거룩함은 영혼 안에 겸손이 넘치게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겸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외식주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거룩과 수평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겸손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

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5-6절).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는 수평적 겸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는 수직적 겸손입니다.

5절 말씀이 “청년들이여”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절 구분을 다시 하면 “여러분”부터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대적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 일종의 자기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사탄이 지옥의 교만을 인간에게 전달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우리가 범하는 동물적 본성에 의하여 짓는 죄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다른 죄는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지만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죄는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만으로부터 구원받은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데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부터 구원받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

익함이라”(빌 1:21).

여러분, 이 말씀 해석의 포인트를 뒤에다 두면 안 됩니다. 해석의 포인트를 앞부분에 두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표현은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고백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는 그 열매 중 하나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유익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겸손한 영혼이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수 없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진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본질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유명한 고전 <겸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는 죽음이 겸손의 완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꽃에 맺히는 완전한 열매입니다.”

겸손만이 완전한 자아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음만이 겸손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겸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장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하여 죽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롬 6:11).

우리의 자아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 죽음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한 영혼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일을 스스로가 이룬 것처럼 만듭니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겸손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상하게 자아가 강해집니다.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하는데 고집이 더 강해집니다.

믿음과 고집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둘 다 어떤 반대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포기하지 않고

고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거룩과 화평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만, 고집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상하게 하고, 자아의 욕망만 남게 됩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겸손 회복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란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교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성장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교만은 가장 큰 원수입니다. 겸손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로 삼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교만 또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일수록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의 죄에 누가 더 빠지기 쉽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믿음생활을 시작한 성도들보다 앞서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훨씬 더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 그 뒤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은 새가족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 보았습니까. 절의 스님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 보았습니까.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이기적입니다. 사회는 비교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공동체는 비교를 통해 더욱 후퇴합니다. 지도자가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적대적일 때 교만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야망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훨씬 더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대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심판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교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3면에 계속)



청년, 사랑을 배우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연애와 결혼 지침서

지난 4일 대학청년부가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2017 라이프컨퍼런스 '사랑을 배우다'를 개최했다. 라이프컨퍼런스 '사랑을 배우다'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연애를 하고, 성경적 가정(결혼)을 세울 수 있는지를 배우는 자리였다. 청년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컨퍼런스 참가신청을 시작하자마자 등록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 인턴'(동거의 또 다른 말), 비혼(非婚)주의(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 싱글 추구)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연애와 결혼을 경시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시기에 크리스천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겨 보는 유익한 기회였다. 2017 라이프컨퍼런스 '사랑을 배우다'에서 강의한 가수 강균성(그룹 '노을' 메인보컬), 장경철 교수(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김숙경 간사(CCC Family Life 담당), 이요셉 작가(<결혼을 배우다> 저자),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부장)의 메시지를 요약·정리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크리스천의 연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

크리스천들이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첫째, 말씀이다. 말씀을 보지 않고 내 인생이 아름답게 그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악한 영이 하는 일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만 한다.

둘째,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신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열성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바란다.

셋째,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다. 비단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도 예배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리기를 축복한다.

넷째,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과 맞바꾸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이 성이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부부관계

가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곧 책임이자 질서인 것이다. 만약 성관계가 무너졌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스킨십을 할 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낄 수 있다. 어깨동무나 포옹을 할 수 있다. 포옹할 때는 배꼽이 닿지 않는 것을 권한다. 성경에서도 음란을 피하라고 말한다. 청년들이 하는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속궁합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다. 이 질문은 비교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비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기준점은 하나님 안에 있다. 속궁합은 부부가 된 뒤 서로 맞춰갈 수 있다. 또한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깨버리기 때문이다. 야동이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미국의 논문에서 발표된 바 있다. 연애와 결혼을 할 때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을 쫓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란다.



강균성
(그룹 '노을' 메인보컬)

남자와 여자

남자의 자격

결혼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결혼할 사람, 결혼을 안 할 사람,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그것이다. 결혼해야만 품위 있는 사람이고, 결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주목할 점은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다.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결과가 안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 과정을 무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훈련이다.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도 있다. 그러나 실패해도 시행하는 것이 훈련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결혼은 대화다. 일평생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야 한다. 일단 누구에게든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부부행세를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내게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의 고삐를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또한 이상형을 버려야 한다. 이상형이 있으면 간직을 하되 발설하지 않는 차선을 택하기를 바란다. 이상형을 자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어떤 결핍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상대방에게 노출 시키는 것이다. 자신이 못 가진 것에 대해 미화하면서 환상을 가진 것이 이상형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단순하다. 아빠가 엄마와 결혼한 것

처럼 하면 된다. 아빠가 엄마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엄마가 아빠의 고백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결혼했다. 결혼을 하고 싶다면 고백을 잘하는 연습을 하기를 바란다.

결혼은 반드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한 사람과 해야 한다.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취향이다. 취향은 마음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보다 고백할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고백이 무엇일까. 두 사람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격의 연합이다. 연합은 하나 됨을 말한다. 고백은 좋아하는 것의 표현이 아니라 결단이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 부임을 알리는 것이 고백이다.

다음에 갈 장소가 있고, 그 다음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살아서 어디를 간다는 것은 공급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내게 찾아오는 공급에 주목하고 환대를 해주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란다. 한대란 상대방의 자격이나 실적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건네는 호의 또는 혜택이다. 호의나 혜택은 그 리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리움이 느껴지는 성품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은 있어도 나를 한 번만 만나는 사람은 없도록 만 들기를 바란다.



장경철 교수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지난 4일 대학청년들이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자와 여자

여자의 품격

‘남자가 힘들다’, ‘대화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면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기를 바란다. 왜 그렇게 연애가 어려운지를 확인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무섭지 않은 남자, 편안한 남자, 신앙이 같은 남자, 친구같이 대해줄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한다. 이런 남자를 만나려면 기도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찾아다녀야 한다. 준비된다는 것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알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크리스천인데도 자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대로도 괜찮아, 이런 내가 좋아”라고 말해야 한다. 뇌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식한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스스로를 만족하는 여자가 돼야 남자도 만족한다.

남녀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게 대화, 필요, 성, 스트레스 해결방법에서 남녀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화 목적이 다르다. 남자는 해결이고, 여자는 공감이다. 남자는 해결을 사랑이라고 여긴다. 그렇기에 남자가 공감을 모르면 여자가 자신의 기분을 알려줘야 한다. 내 감정을 논리적으로 말해줘야 한다. 남자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헤어질 필요가 없다.

둘째,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다. 남자의 필요는 칭찬과 인정이지만 여자의 필요는 사랑과 이해다. 남자들은 인정하고 칭찬해줄 때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처럼 서로의 성향을 알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성욕구가 다르다. 남자의 성욕은 비주거적이며 조절하기 힘들다. 스킨십을 하다 보

면 조절하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여자가 스톱해야 한다. 데이트할 때 오픈 공간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권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넷째, 스트레스 해결방법이 다르다. 여자는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조금 생각하고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 잘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줄 때 만날 수 있다. 연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결혼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을 위해 가는 것이다.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보완하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문제에 직면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배우자를 기대하기를 바란다. 내 약점, 결핍이 아무렇지 않은 상대가 내 배우자다. 함께 손잡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



김숙경 간사
(CCC 간사)

사랑을 배우다

순종하는 사랑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을 바꿀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자신의 성격까지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열쇠다. 그렇기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남편, 아내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설거지 하고 아내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년 너머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때 “갈등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지

혜롭게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 너무 다른 사람과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바뀌지 않는 상대방을 답답해할 때가 있다. 사람은 좋은 말 몇 마디, 옳은 말 몇 마디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한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보니 어느새 진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여졌다.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내가 입 벌리고 자고 있어도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한다. 해야 할 것은 많은데 나이만 들어가는 자신이 누추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주권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요셉 작가
(《결혼을 배우다》 저자)

하나님의 꿈, 가정

하나님의 가정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셨는가?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이다.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계가 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상징한다.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한다.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정삼각형을 이루어야 한다. 세 꼭짓점이 점점 가까워져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교제가 하나님에 보일 때 기뻐하시는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더 멀어졌는가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일 가능성이 높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서로 예뻐 보일 때는 성령 충만할 때다. 남편이 성령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사랑은 언약에서 흘러나온다. 감정의 사랑은 불안하다. 바람이 불면 사라진다. 그래서 불안하다. 감정의 사랑은 보통의 연애관계다. 반면 결혼은 언약적 사

랑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말한다. 언약적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관계다.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시작된다. 상대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가정은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모난 성품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

생명은 가정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믿음의 계승도 마찬가지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가정이 없다면 다음 세대 부흥도 없다. 믿음이 계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가정을 흔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다.

요즘 젊은이들을 삼포세대라고 일컬으면서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도전이다. 생명의 탄생과 믿음의 계승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때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부본부장)

르포 아프리카 우간다 난민사역 현장을 가다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는 난민들

NGO 더멋진세상, 어린이 긴급지원 사업 시행



① 부드리프라이머리스쿨에서 만난 남수단 난민 어린이들.
② 부드리 난민촌에 우물이 부족해 물을 받으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
③ NGO 더멋진세상이 지원한 천막 5동에서 1,444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는다.



그래도 희망을 품고 행복을 꿈꾸고 있었다. 손 내밀어 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었다. NGO 더멋진세상이 이번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만난 난민들은 남수단 내전을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집, 직장, 땅, 가족, 가족 등 소중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야만 했다. 내전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못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남수단에서 발발한 내전으로 이백만 명에 육박하는 난민이 발생했다. 아프리카 최대의 위기로 부상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2011년 남수단이 수단으로 부터 독립하면서부터 내전의 기미가 보였다. 대통령과(정부군)와 부통령과(반군)가 서로 정권을 쥐기 위해서 갈등하다가 결국 2013년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다. 그 전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현재까지 180만 명을 훌쩍 넘겼다. 그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간다가 남수단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호의적인 난민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간다 난민촌은 남수단 국경과 접경지역인 북부지역에 넓게 형성되어 있다. 남수단 내전이 발발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날마다 수백 명이 넘는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우간다로 오고 있다. 남수단 내전은 정부군과 반군의 정치적 싸움에서 당카족과 누에르족의 종족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해를 거듭할수록 난민들이 늘어나자 우간다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국제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식량, 천막, 식수 등 생필품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돕는 어른들, 꿈꾸는 아이들

가진 것이 없다고 미래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우간다에서 만난 난민들은 희망을 찾고 행복을 꿈꾸고 있었다. 우간다 정부가 남수단에서 온 난민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해 준 덕분이었다. 우간다 정부는 한 가정당 30㎡ 정도의 땅을 제공하고 있다. 난민들은 그 땅에 집을 짓고, 작게나마 작물을 기르고 있다. 난민촌 출입도 자유롭다. 보증인만 있으면 우간다 어디에서든지 취업을 할 수 있고, 거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교육문제는 열악했다. 남수단에서 온 난민의 약 50%가 어린이인데 교육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 같은 문제에 주목하고 지난해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난민촌에 교실용 천막 20개, 우물 2개, 교실용 정수기 150여 개를 지원했다.

우간다 아리주마 지구 피라나가야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임마누엘(17세)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10대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시간을 감내해야

만 했다. 그래도 꿈꿀 수 있다. 1년 사이 튼튼한 흙집을 지었고, 국제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피라나가야세컨드스쿨)에 다니게 되면서 몰라보게 좋아졌다. 임시천막 3동이 전부였던 학교도 지난해와는 달리 지금은 2동의 벽돌건물과 화장실, 우물, 교실용 정수기가 더 생겼다. 더 이상 물 한번 마시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NGO 더멋진세상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꿈꾸지 못했을 변화다.

피라나가야세컨드스쿨의 전체 학생 수는 741명이다. 한 반에 학생 수가 대략 150명 정도로 많다. 시설도 열악하고 교과서도 없다. 그래도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남부럽지 않다. 교사들이 칠판에 수업할 내용을 적고 설명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 새라 공책에 열심히 받아 적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꿈도 갖게 되었다. 피라나가야세컨드스쿨의 막내 14살 안조의 꿈은 엔지니어다. 임마누엘도 꿈을 꾸고 있다.

“제 꿈은 과학자예요. 꼭 이루고 싶어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아리주마보다 더 북부지역에도 신생 난민촌이 있다. 그 신생 난민촌은 나일강을 건너고 수시간을 더 이동해야 하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 NGO 더멋진세상은 그곳에도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교실용 천막 5개, 10개의 교실용 정수기 등을 지원했다. 모요지구에는 ‘부드리 난민촌’도 고립된 지역 중 하나인데 그곳도 마

다않고 찾아갔다. 부드리 난민촌은 아리주마 지구에서 한 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배를 타고 나일강을 건너 또 한 시간 반가량을 차로 이동해야 한다. 부드리 난민촌에는 8천여 명의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마을 초입에 도착하자 학교의 관리인이자 7명의 자녀를 둔 사무엘재심이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NGO 더멋진 세상 덕분에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실용 정수기는 인기가 정말 최고예요. 1,444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드리프라이머리스쿨의 교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며 NGO 더멋진세상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긴급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난민들이 내전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서 NGO 더멋진 세상이 남수단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인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남수단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과 옷이 아니라 교육환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와 우간다 정부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남수단에서 온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 NGO 더멋진 세상은 2018년부터 모요지구에 14개의 교실, 우물, 화장실 등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예정이다.

치유하고, 회복되고, 새 생명이 움트고

한강공동체와 꿈사랑부의 만남 그리고 변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아름다운 연합으로 치유하고, 회복되고, 새 생명이 움트는 공동체가 있다. 한강공동체와 꿈사랑부가 그 주인공이다. 한강공동체는 2015년부터 실시한 ‘1다락방 1사역’으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꿈사랑부를 선택했다. 꿈사랑부는 16명의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공동체이다. 한강공동체 지체들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꿈사랑부 지체들과 부모, 교사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새 생명이 움트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강공동체와 꿈사랑부의 그 아름다운 만남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꿈사랑부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예배 드리고 있다.



▲ 올해 한강공동체 온유, 충성 다락방이 꿈사랑부 여름 수련회에 함께했다.

꿈사랑부 야외예배에서 만난 한영이의 부모님(이상훈, 박현주)이 모처럼 활짝 웃고 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응준, 송일근 성도(한강공동체 온유8순)와 만났기 때문이다.

“한영이와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분들 덕분에 저희 부부의 마음이 정말 많이 편안해졌어요.”

한강공동체 이응준, 송일근 성도의 중보기도가 한영이 부모님의 마음을 녹였다. 사실 한영이 부모님이 이처럼 활짝 웃은 일은 10여 년만이다. 장애가 있는 한영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웃을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 마땅히 기댈 곳도 없었다. 남편 이상훈 성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아내 박현주 성도는 모태신앙이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 한영이가 태어난 이후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

기 때문이다. 교회뿐만이 아니었다. 한영이와 어디를 가든지 늘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견딜 수 없이 힘들 때마다 교회를 찾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오래다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한줄기 빛을 발견했다.

“우연히 온누리사랑채버의 기사를 보게 됐어요. 저희 아이처럼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는지 몰라요.”

곧장 온누리교회로 달려갔다. 그리고 온누리사랑채버와 꿈사랑부에 등록했다. 그때부터 조금씩 한영이네 가정에 변화가 시작됐다.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은 한영이 아빠였다.

“남편이 한영이를 온누리사랑채버에 데려다주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남편의 마음을 연 것은 한강공동체 성도들

의 사랑과 관심, 배려와 기도였다.

“한강공동체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 부부만의 힘으로 한영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큰 사랑과 관심, 배려와 기도에 큰 감동을 받았습시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아내 박현주 성도의 기도가 저절로 응답되었다. 이 기도만 응답된 것이 아니다. 한강공동체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큰 은혜를 받은 일이 있다.

지난달 10일 온누리사랑채버가 예술의전당에서 희망콘서트를 했을 때다. 그날 박현주 성도는 한영이가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한영이가 환공포증(반복되는 특정 문양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걱정이 돼서 한강공동체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그 기도 덕분에 한영이

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보다 좋은 친구가 없다

한영이네와 한강공동체의 만남은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던 이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했다. 예수 안 믿던 한영이 아빠가 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또 하나의 새 생명이 움텄다. 이 귀한 만남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송일근 성도(한강공동체 온유8순)는 “한영이가 내 자식 같아서 너무 좋다”면서 “앞으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한영이네를 위해서 끝까지 간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강공동체와 꿈사랑부의 만남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사회선교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1다락방 1사역으로 꿈사랑부를 선택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 또한 그때부터 한강공동체 온유, 충성다락방이 꿈사랑부 여름 수련회에 함께 해오고 있다.

꿈사랑부 교역자와 교사, 부모들에게는 늘 함께해 주고 섬겨주는 한강공동체만큼 좋은 친구가 없다.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한강공동체 온유, 충성다락방 열네 개 순이 돌아가면서 꿈사랑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한강공동체가 꿈사랑부에 나눠준 사랑이 꿈사랑부 지체들과 교사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 꿈사랑부 정선정 교사는 “꿈사랑부를 섬기면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함께 예배드려주는 한강공동체 덕분에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9월 말부터는 한강공동체 온유, 충성다락방 14개 순이 꿈사랑부 각 가정을 품고 중보기도하고 있다. 한강공동체와 꿈사랑부의 만남이 물들어가는 가을처럼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역칼럼



배문 장로
(꿈사랑부 담당)

체를 찾아가 섬기고 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

사회선교부 주관으로 ‘1다락방 1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덕분에 많은 공동체 다락방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섬기고 있다. 다락방들은 주로 외부에 있는 소외된 교회나 단

서 섬기는 것도 의미 있지만 우리 교회 사역에도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다. 장애인 부서 가 그중 하나다.

나는 꿈사랑부를 담당하고 있다. 꿈사랑부는 발달장애인과 지체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섬기는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서인데도 교사가 늘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이들 한 명 한 명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

2015년부터 한강공동체 온유, 충성다락방에서 ‘1다락방 1사역’의 일환으로 꿈사랑부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해주는 것만으로도 꿈사랑부 교사와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무엇보다 꿈사랑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매년 수련회 때마다 봉사자가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한강공동체가 함께해준 이후부터는 봉사자가 부족하지 않다. 함께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생각한다. 꿈사랑부 교사들도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섬기

고 있다.

사실 매주 지속적으로 섬기는 일이 쉽지 않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다. 요즘 한강공동체 섬김을 보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섬김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꿈사랑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손길이 필요한 사역이 정말 많다. 교회 내에 있으니까 가깝다는 장점도 있다. 도움의 손길이 많아질 때 교회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

특별기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IV)

족자카르타 원칙: 유엔 보편 인권 개념의 변질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롱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대학
원 설립원장)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적 흐름을 바꾸자는 혁명적 흐름이 서구로부터 밀려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유럽 사회를 휩쓸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로써 무신론적이며, 반신론적일 뿐 아니라 사탄적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남자와 여자로서 존재하는 양성과의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갖는 역할을 완전히 폐지하고 무효화시키자는 이념이다. 이것은 인류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인간사회의 기본 덕성과 도덕, 정절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이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물고온 시대적 가치 상대주의와 더불어 성평등을 주장한다. 성의 평등이라 하면 인권사항으로 성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인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평등이란 양성평등을 해체시키려는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성평등이란 창조질서인 양성평등을 해체하고, 성을 사회적 산물로 보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양성애 등 어떤 성이든 괜찮다는 사상으로 성혁명 운동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상의 뿌리는 네오-마르크스주의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들 사상은 성해방을 통해 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최종 목적을 지니고 있다. 199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은 동성애자들과 연대해 젠더리즘(genderism)을 만들었다. 젠더 이데올로기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고유한 천부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법률적 강압으로 성(性)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정통적 기독교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다.

1948년 유엔: 보편적 인권 선언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은 1945년 채택된 유엔헌장(UN Charter) 전문(preamble)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대량 학살 등)에 대해 성찰하면서 “기존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다. 유엔은 헌장 제1조 3항에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 달성”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인권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헌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46년 산하에 인권위원회와 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48년 유엔이 보편 인권선언을 발표했을 때 인간과 사회의 기초질서 보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합의가 당시 유엔 지도부에는 있었다. 이러한 기구들은 결혼, 가정, 개인 소유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전통적 가정들이 동의하고 헌신하는 권리들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와 공산주의자들의 통치 아래 인류가 겪은 비인간적이고 전체주의적 체제의 공포는 유엔으로 하여금 ‘인류 보편 인권선언’을 가능하게 했다.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인간의 신성한 존엄(sacrosanct dignity)은 세계 속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로서 세워졌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조: 모든 인간은 품위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이성, 양심이 부여되었으며 서로 형제애로서 행동해야 한다.

2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내지 다른 의견, 국가나 사회적 기원, 소유, 출생 또는 다른 신분의 구분이 없다.

16조(1): 장성한 남자와 여자는 종족이나 국가나 종교에 기인한 제한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16조(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그룹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1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엔 인권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유대 기독교적 인간상에서 파생된다.

유엔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인간 개념을 인간의 근본 원칙으로서 인정한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보다 앞선다. 가정은 그 존립을 국가에 힘입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정들에 의존한다. 가정이 자녀들을 낳고 사회 일원이 되도록 기르면서 인간 공존에 근본적 중요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989년 이후 유엔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1989년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은 모든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고하게 하고, 세계평화가 도래한다는 희망을 제기했다. 이데올로기의 몰락은 모든 차이들, 특히 종교적 차이들이 병합하는 뉴에이지 시대(a New Age)의 새벽으로 간주되었다. 절대적 진리 주장을 했던 종교들은 이데올로기적 회의에 빠졌다. 기독교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마찬가지였다. 유엔은 세계 평화 소망의 보증자로서 보편 인권 선언으로부터 도덕적 자산을 끌어내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유엔은 이념적으로 달라져 1948년 유엔과 전혀 다른 유엔이 되었다. 1989년 이후 유엔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점차 공동화(空洞化)되어 1948년 보편 인권 선언에서 천명된 인간상을 변경시키고, 보편 도덕을 상대주의적 포스트모던 가치로 대체하는 데 행정과 정보, 자료를 사용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유엔이라는 기구는 명목적으로는 여전히 세계평화와 세계 인권을 위한 국제기구이긴 하나, 이 단체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이거나 이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폐위되고 자율적 인간이 하나님의 왕좌에 앉았다. 오늘날 유엔과 그 하부기구들은 1989년 이전 유엔과 달리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목 아래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 해소, 결혼과 가정의 제거, 자율적인 아동권리를 통한 세대의 분리, 성적 도덕성의 제거, 낙태의 인권 간주 등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활동가들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윤리(the new ethic)를 천명한다. 미국 천주교 젠더 이데올로기 여성 활동가 마거리트 피터스(Marquerite A. Peeters)는 저서 <서구 문화혁명의 지구촌화>(The Globalization of the Western Cultural Revolution)에서 지구촌의 반문화 혁명과 새 윤리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녀가 저서에서 제안하는 새 윤리와 가치를 2007년 잡지 <버티칸>에서 다음같이 요약했다.

“포스트모더니티는 실재에 대한 우리의 합리적 내지 신학적 이해, 신에 의해 만들어진 우주 질서, 하나님에 의해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인간학적 구조의 불안정을 함축한다. 포스트모더니티의 근본 특징은 모든 실재란 사회적 구성이라는 것, 진리와 실재란 ‘안정된 객관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티는 개인의 임의적인 주권을 높이고 그와 그녀의 선택할 권리를 높인다. 지구촌 포스트모던 윤리는 차이성, 선택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자유, 성적 다양성(다른 성적 지향)에 대한 축제를 거행한다. 사실 이 축제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실존 조건으로부터 남자와 여자의 해방 축제다. 그렇게 주장된 해방은 새 윤리의 당위성이 된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간주된 유대-기독교적 가치와 신적 계시의 결과로서 간주되는 모든 것의 불안정화와 해체로 나아간다.”

피터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행동방식을 차용하여 오늘날 인류를 유대-기독교적 윤리 패러다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지구촌 윤리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다. 그녀가 창안한 포스트모던 새 윤리란 객관적인 진리나 가치는 없으며 진리나 가치란 인간이 사회적으로 만든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진리와 가치 상대주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표현들을 도입했고 옛 내용들을 새 내용으로 채웠다. 그녀는 유대 기독교 패러다임과 포스트모던 패러다

THE YOGYAKARTA PRINCIPLES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공식적인 권위나 합법성이 없는 저명한 인권운동가 그룹이 모여 만든 ‘족자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임을 다음같이 상호대립적으로 구분한다.

진리에 대한 대립으로서 오류의 권리, 절대적 가치와 묶는 기준들에 대한 대립으로서 자율적 개인의 자유선택, 위계질서에 대한 대립으로서 평등, 양친의 권위에 대한 대립으로서 아이들의 권리, 성(sex) 대신에 젠더(gender), 남자 혹은 여자로서의 이원적 성 정체성에 대한 대립으로서 젠더의 선택, 규범으로서의 이성애에 대한 대립으로서 어떤 성행위든 법적, 사회적 수용, 배우자에 대한 대립으로서 파트너, 핵가족에 대한 대립으로서 입양권리, 낙태에 대한 대립으로서 가족계획과 출산 건강, 국가 주권에 대한 대립으로서 지구촌 관리, 대표 민주주의에 대한 대립으로서 참여 민주주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결에 대한 대립으로서 대화, 다수 결정에 대한 대립으로서 합의, 전통에 대한 대립으로서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대립으로서 다양한 문화주의, 십계명에 대한 대립으로서 도덕 상대주의, 하나님에 대해 자율적 개인을 대립시킨다. 그녀는 전통적 기독교 가치 붕괴를 선언한 니체의 반기독교적 이념을 이어받고 있다.

마거리트 피터스는 천주교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가로서 “인간학이란 삼위일체론적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형상이라고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새로운 지구촌 윤리학’이란 용어는 막연히 긍정적으로 들리며, 더 좋은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옛 용어 ‘유대-기독교적’이라는 용어는 시대에 뒤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지구촌 윤리용어는 전통적 가치인 진리, 도덕성, 권위, 위계질서, 양심, 남편, 아내, 절제, 순결, 악이라는 용어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가 무너진 자리에 오류, 자유선택, 평등, 젠더, 성평등, 도덕상대주의, 다수결 합의, 자율적 개인 등이 대체(代替)하고 있다.

유엔 인권 운동의 두 가지 흐름

그렇다고 오늘날 유엔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1948년 유엔의 보편적 인권 선언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 안에 동성애 인권화 운동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 자연적 가족제도 보호운동(Pro-Family Movement)이 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의 인권 상황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동성애에 관해서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커서 현재까지 유엔 총회나 이사회 차원에서 단일 합의를 도출한 바가 없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연속 2년간 인권이사회는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선진국 대표들과 국제 동성애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전통적 가족 형태의 보호 필요성을 천명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다. 위 결의서는 각각 24:14(2014년), 27:14(2015년)로 채택되었고, 가족의 중요성과 회원국 정부가 가족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 결의서에는 전 세계 73개 NGO들이 찬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권이사회 결의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등장하는 자연적 전통적 가정에 관한 규정을 재인용한 것으로, 친생명(pro-life) 또는 친가족(pro-

family) 운동가들은 이에 근거하여 가족의 개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엔 내 동성애 인권화 운동가들(태국의 대학교수 비티 문타폰 등)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주제가 세계인권 선언 제7조의 비차별 원칙에 포함되므로 이에 근거한 다자 인권 조약들의 효력도 동성애 문제에 확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 인권화 운동은 생물학적 성별 구분의 거부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결혼과 가족 제도의 해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세계 인권 선언 제16조 3항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명시적 규정과 충돌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권 선언은 물론 국제 인권법 체제 어디에도 가족의 개념을 정의한 곳이 없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Committee of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는 가족에 관해 다음 같이 규정한다.

“국제인권법 아래 가족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인권위원회는 가족의 개념은 관점에 있어서 나라에 따라 나라 안의 지역에 따라 조차 다르다. 그래서 기준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 국제법상 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놓고 양친동성애와 반동성애) 진영이 정치적으로 격돌하고 있다. ‘동성애 인권화 운동’은 주로 가족의 다양한 형태(various forms of family)가 각종 국제기구 결의 등 다양한 소프트 법(soft law)문구에 반영되도록 로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자연적 가족제도 보호운동’은 자연적 기본적 사회그룹 단위(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가 반영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실행 설명서, 전체주의적 접근

2007년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공식적인 권위나 합법성이 없는 저명한 인권운동가 그룹이 모여 젠더 이데올로기 실행 원칙을 만들었다. 이를 공식화해서 이들이 모인 지명(地名)을 따서 ‘족자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이라고 부른 것이다. 족자카르타 원칙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세계적으로 퍼트리고 실행하는 상세한 설명서이다. 그것은 29가지 원칙인데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젠더(gender)의 자유선택,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자유선택,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의 자유선택이다. 29가지 원칙들은 지구촌 성혁명의 목표를 이행하는 열쇠이다. 이들은 2007년 3월 이들에게 권위를 빌려준 유엔빌딩에서 이 원칙을 발표했다. 29가지 원칙은 젠더 활동가의 새로운 도구이다. 이것들은 <족자카르타 원칙에 대한 활동가의 안내>(An Activist's Guide to the Yogyakarta Principles)로 불리는 2백 쪽 되는 안내서로 제공된다. 이 안내서는 족자카르타 원칙을 정치적 행동으로 번역한 것이다. 족자카르타 원칙에 대한 활동가의 안내는 국제인권조약을 살아있는 도구가 되도록 설명한다.

“국제인권법이 살아 있는, 진화하는 도구인 것처럼 족자카르타 원칙은 살아있는 문서다.

원칙의 범위는 확장될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가들에게 인권이란 단지 젠더 이데올로기를 세계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젠더 운동가들의 안내는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사회적 법적인 기준을 가진 각국의 문화들이 족자카르타 원칙을 도구로 사용하여 혁명화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29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국가들은 이 원칙을 그들의 국가 헌법 혹은 다른 적당한 법률 속에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유엔의 권위를 빌려서 각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 원칙을 헌법이나 법률 속에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그러나 족자카르타 원칙은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가인 민간인들이 유엔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건 문건일 뿐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은 없다.

족자카르타 원칙의 내용

족자카르타 원칙은 실제 원칙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재해석 내지 더 나간 발전에 기초한 29가지 임의적인 권리들이다. 이것은 다수자의 권리와 사회적 자유방임자들을 희생하여 동성애 소수자들을 위한 특별지위를 호소하고 있다. 문서의 중심 개념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이며 전문(前文, preamble)에는 다음 문장이 있다.

“깊은 감정적, 정서적, 성적 매력을 위한 각자의 능력을 지시하는 성적 지향, 진실한 그리고 성적 관계, 다른 젠더 혹은 동일한 젠더 내지 한 젠더보다 더 많은 개인들을 이해한다.”

족자카르타 원칙은 성적 선호나 활동의 어떤 타입도 배제하지 않는다. 심지어 소아성애(pedophilia), 근친상간(incest), 일부다처제(polygamy), 일처다부제(polyandry), 다애인제(polyamory), 수간(zoopophilia, bestiality)도 허용하고 있다. 성적 정체성이란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가능한 객관적인 생물학적, 신경학적 차이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고 느낌이나 임의적인 주관적인 결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이 원칙은 다음같이 선언한다.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가정의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어떤 가족도 구성원 하나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

족자카르타 원칙은 양성적 정체성을 해체하고, 동성애 행위를 수용하고, 입양권을 가진 동성 결혼을 보장하고자 한다.

속임수 방법

족자카르타 원칙의 성소수자 의제(議題)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관용이나 적용이 아니라 성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자유를 희생하는 특권 부여에 관한 것이다. 지구촌 성소수자들 네트워크는 그들의 목표를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면 그들의 특권이란 모든 대륙, 문화와 종교들로 구성되는 세계인구의 큰 다수에 의하여 거절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혁명의 성공을 위해 모든 반대자들이 억압당할 수 있는 되돌아갈 수 없는 점까지 속임수(obfuscation)를 필요로 한다. 속임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거짓 권위와 합법화의 주제넘음(presumption), 정의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용어(ambiguous terms) 사용, 기존 국제법에 일치한다는 거짓 가식(false pretense)이다.

강행 방법

이들은 정상적 성(性) 정체성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규제하는 의식적, 지성적 조작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각 나라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유엔 기구를 통하여 각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권고 사항은 유엔 총회와 이사회에서 나온 결의안이 아니라 동성애 운동가들이 유엔 이름을 빌자하여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각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동성애가 합법화 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비판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첫째, 조약 감시체와 민간단체들을 통한 국가 주권 공동화(空洞化)를 시도한다. 한국에서도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조항에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삽입하여 이를 빌미로 동성애를 장려하도록 언론 기관 등 여러 기구를 통제하여 왔다.

둘째, 유엔과 유럽을 통한 동성애 조직체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학교 조직 경영에 성소수자 의제를 실행한다. 원칙 16은 다음 같이 천명한다.

“국가는 교육방법, 커리큘럼과 자료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쿼어축제 등 공적 시위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를 시도한다. 미디어에 영향을 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에 공문을 보내어 성적 지향이나 동성애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는 언론지침을 준다.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과 중국 등지의 탈북자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개인의 성행위와 관습의 문제인 동성애를 국민들에게 전염시키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동성애 활동가들의 로비에 의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한국 교회와 동성애 대책위원회의 반대에 의하여 무산시킨 바 있다. 2007년 법무부를 통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입안되었다. 언론에 공개된 21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 중 동성애자 차별 금지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하여 에스터 기도운동을 중심으로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민연합(동반국)’이 출범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이를 반대하여 결국 법무부는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 법안 조항 상정을 포기하였다. 2010년 법무부 주도로 3년 만에 차별금지법 입안시도가 두 번째 있었으나 에스터 기도운동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막아 내었다. 2013년에는 민주당 통합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세 번째 있었으나 제지되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계기독교 가운데 정통기독교 신앙과 한국 사회에 보편윤리가 지켜지도록 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계속)

비움과 채움 그리고 단순성

거룩하지 않은 것을 비우고, 거룩한 것들로 채우고



이창규 목사
(서빙고 하나님의가
정훈련학교 담당)

기독교 영성을 말할 때 ‘비움과 채움의 영성’을 이야기한다. 간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간직하고 있기에 비워야 하며, 비움을 통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새롭게 채우는 작업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비움(kenosis)의 영성

‘비움’ 하면 흔히들 불교적인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 본 사람이라면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한 측면이 바로 비움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비움을 헬라어로 ‘케노시스(kenosis)’라고 한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찬미송을 불렀다고 한다. 사도 바울 또한 다른 서신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삶은 비움의 삶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보면 자신을 비우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는 목회적 노력들이 있었다. ‘예수 기도(Jesus prayer)’를 들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시각장애인 바디매오의 기도(막 10:46-52)였고, 성전에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세리의 기도(눅 18:9-14)였다. 이 간단한 기도문을 드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

세족식 또한 비움을 보여주는 좋은 예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며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비움심의 절정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이다. 떡과 포도주를 떼어 나누어 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기

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찬식을 통해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채움(pleroma)의 영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움은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십자가의 비움심은 우리를 살리시고 의로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영성은 채움의 영성이다. 비워놓기만 하면 위험하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는데 그 후에 귀신이 그 집이 빈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차지해 버렸다는 비유이다(눅 11:24-26). 비우기만 하면 안 된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

에 가득해야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입어야 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통치와 생명력으로 가득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엡 1:23).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은 거짓된 것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의 모습이다(골 3:10). 탐심, 노

교훈과 시시점을 던져준다. 분주하고 복잡한 현대인의 삶에 강한 도전과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단순성은 자유이다. 이중성은 굴레이다. 단순성은 기쁨과 조화를, 이중성은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준다.”

단순성 훈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와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리차드 포스터는 단순성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역설하는데, 이러한 삶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충분히 대처하도록 돕는다고 조언한다. 단순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만들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소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과도하게 소유하려는 충동적인 욕망과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 단순성의 삶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삶이 된다.

단순성 훈련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과 순종이 있다. 물론 그 밖의 것들도 가치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을 때 생태계에 대한 관심,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 재물의 공정한 분배 등 많은 중요한 일들이 바른 취급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단순성의 훈련은 깊은 내적인 중심성과 실재를 가지고 있다. 단순성의 실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차드 포스터는 기독교적 단순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10가지로 제안했다.

“물품은 체면이 아니라 유용성을 보고 사도록 하라,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배격하라, 물질을 나누어주는 습관을 기르라, 현대 가전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 물질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 창조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라, 지금 구입하고 나중에 값는다는 생각에 대해 건전한 의심을 해보라, 말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고 모호한 말이나 추상적인 공론을 배격하라,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주는 일을 모두 거부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피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마 6:33) 삶은 결단과 순종이 요청된다. 그러나 단순성의 삶이야말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비우고,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수아 페넬롱의 말을 덧붙이고 싶다.

“진실한 단순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편견이 없도록 만들고, 온유하도록 만들며, 또한 순결하고 쾌활하고 평온하도록 만든다... 단순성은 복음의 진주이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비움과 채움 그리고 단순성이다.

워야 한다.

채움은 헬라어로 ‘플레로마(pleroma)’라고 한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충만하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씀한다(골 2:9-10).

성경은 기독교 영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시 42:1-2).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갈망이 우리 안

여움, 비방, 악의, 거짓말로 대표되는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 용서, 평화, 감사, 온유, 자비, 겸손, 오래 참음 등으로 표현되는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성령으로 채움 받은 충만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다(갈 5:22-23).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움과 채움은 단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를 살아내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영성이다.

단순성 훈련

비움과 채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명저 <영적 훈련과 성장>(Celebration of Discipline)에서 13가지의 영적훈련을 소개한 바 있다. 모든 훈련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단순성 훈련은 비움과 채움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많은



지난해 임직식에서 안수를 받고 있다.

장로장립 및 권사·안수집사 임직식

(12월 2일)

(11월 25일)

장로 30명, 권사 152명, 안수집사 293명

2017년 장로장립 및 권사·안수집사 임직식이 열린다. 장로장립식은 12월 2일(토), 권사 및 안수집사 임직식은 11월 25일(토)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거행된다.

올해 장로장립 대상자는 30명(예정)이다. 피택장로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장로사관학교에서 교회론과 목회철학, 바람직한 장로상, 대표기도법, 타문화 선교, 사역지 탐방, 온누리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과 도전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량을 훈련했다.

올해 임직 대상자는 445명이다. 권사 152명(명예권사 3명, 권사 149명), 안수집사 293명(남자 90명, 여자 203명)이다. 올해 임직 대상자들은 지난 9월 2일 개강해서 11월 7일(화요일)과 11일(토요일) 종강한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임직자스쿨에서는 부르심과 헌신, 온누리교회 비전과 창 의적 리더십, 행복한 가정과 리더, 일터 영성, 안수집사·권사의 모델, 교회론과 목회철학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임직 대상자들은 개인영성훈련(성경통독, 새벽기도, 독서보고서, 큐티, 봉사활동)도 이수했

다. 임직 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각이나 불참하면 임직을 받을 수 없다. 복장은 남자는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는 검정색 바지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어야 한다. 임직예배 리허설은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한다. 임직회비는 따로 없다.

임직예배에 올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촌역 4번 출구,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교회 앞에서 셔틀이 운행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2017년 하반기 공동체 종강예배 일정 ■

서빙고				양재 /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24(금)	S브릿지	두란노홀	오후 6시	11월 28일	분당B	온유홀	오후 7시
11/24(금)	이수	한동홀	오후 6시	11월 29일	양재	화평홀	오후 7시
11/24(금)	찬양사역	비전홀	오후 6시	11월 29일	강남A	온유홀	오후 7시
11/24(금)	강서	EM전시관	오후 6시	11월 29일	서초A	드림홀	오후 7시 30분
11/26(주일)	특초	순영홀	오후 5시	11월 30일	서초B	화평홀	오후 5시
11/28(화)	서대문	두란노홀	오후 6시	11월 30일	안양평촌	드림홀	오후 8시
11/28(화)	영등포구로	한동홀	오후 6시	12월 1일	산본안산	드림홀	오후 4시
11/28(화)	관악금천	비전홀	오후 6시	12월 1일	POINT5	온유홀	오후 8시
11/28(화)	한강	시온홀	오후 6시	12월 1일	강남D	도곡교육관 기쁨홀	오후 7시
11/30(목)	성동광진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1일	강남B	화평홀	오후 6시 30분
11/30(목)	동작	비전홀	오후 6시	12월 3일	하모니	비전홀B	오후 5시
11/30(목)	노원	상현교회	오후 7시	12월 5일	송파	온유홀	오후 7시 30분
11/30(목)	서빙고	한동홀	오후 6시	12월 5일	분당A	화평홀	오후 6시 30분
11/30(목)	여의도	시온홀	오후 6시	12월 6일	강남C	온유홀	오후 7시
12/1(금)	김포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6일	과천의왕	드림홀	오후 7시
12/1(금)	OCC	한동홀	오후 6시	12월 8일	CMN	화평홀	오후 7시
12/1(금)	용산	비전홀	오후 6시	12월 8일	서초C	드림홀	오후 6시
12/1(금)	신용산	시온홀	오후 6시	11월 24일	부천 민음	영화관람	오후 8시
12/3(주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오후 6시	11월 24일	부천 사랑	드림홀	오후 7시
12/3(주일)	북누리	북누리 비전센터	오후 5시	12월 1일	부천 화평	비전홀	오후 7시 30분
12/3(주일)	고양은평	진관교회	오후 5시	12월 2일	부천 소망	-	-
12/5(화)	중종로	두란노홀	오후 6시	11월 24일	부천 희락(부평)	비전홀	오후 6시 30분
12/5(화)	가정사역	한동홀	오후 6시	11월 24일	부천 희락(삼산A)	외부	-
12/5(화)	성북	비전홀	오후 6시	12월 1일	부천 희락(삼산B)	예광홀	오후 7시
12/5(화)	동대문중앙	시온홀	오후 6시	12월 2일	부천 희락(부개)	203호	오후 5시
12/7(목)	강촌	두란노홀	오후 6시	11월 30일	수원 남누리	경찬홀	오후 7시
12/7(목)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11월 30일	수원 동누리	비전홀	오후 7시
12/7(목)	광명	은광교회	오후 7시	12월 1일	수원 북누리	경찬홀	오후 7시
12/8(금)	마포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1일	수원 북누리	비전홀	오후 7시
12/8(금)	이촌	한동홀	오후 6시	12월 1일	남양주 연합	본당	오후 8시
양 재				11월 26일	평택 연합	본당	오후 4시
11월 24일	서초D	화평홀	오후 8시	12월 1일	인천 연합	-	오후 7시 30분
11월 26일	푸른누리	온유홀	오후 3시 40분	12월 1일	강동 연합	본당	오후 8시
				12월 3일	양지 연합	박모세홀	오후 2시

수능온종일기도회 11월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양재 사랑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강도 5.4)으로 11월 23일로 미뤄짐에 따라 차세대사역본부도 ‘수능온종일기도회’를 23일로 연기했다. 수능

온종일기도회는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개최된다.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수능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문의: 02-3215-3547

온누리교회 선교컨설팅 개최

2000선교본부가 더 탁월한 선교를 위하여 선교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연합’을 주제로 진새골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선교컨설팅에는 이재훈 담임 목사,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등 30여 명의 선교리더십이 참석했다. 컨설턴트로는 넬스 제닝스 박사(온누리 선교연구소), 이태웅 박사(KGLI 위원장), 조문상 선교사(BEE

KOREA) 한정국 선교사(2000선교)가 자리했다. 선교컨설팅에서는 가감 없는 평가와 조언이 이어졌다. 조문상 선교사는 “현지화에 대한 의지, 토착화를 위한 분명한 방법, 본부와 현장 간 분명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넬스 제닝스 박사는 ‘온누리선교 방향에서 각 선교단체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더멋진세상, 해외 장단기 선교사 모집

11월 27일까지 접수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에서 해외 장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파견 국가는 세네갈, 르완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요르단이다. NGO 더멋진세상 장단기 선교사로 파견되면 해외사업장에서 지역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기선교사는 농업

전문가, 단기선교사는 교육, 보건, 농업, 난민, 행정사역을 담당한다.

참가신청은 11월 2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NGO 더멋진 세상 장단기 선교사로 선발되면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파송된다.

홈페이지: www.abetterworld.or.kr
문의: 02-2271-2246

몽골 아가페 기독교병원 후원의 밤 행사

25일 오후 5시 양재 기쁨홀

몽골 아가페 기독교병원 후원의 밤 행사 ‘Dream Mongolia’가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후원으로 11월 25일(토) 오후 5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개최된다. 몽골 아가페 기독교병원을 사랑하는 성도나 몽골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박관태 선교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가수 양파, 김영우(스윗소

로우), 이숙현(오보에), 서단비(텔런트), 이지희(방송인)가 출연한다.

몽골 아가페 기독교병원은 박관태 선교사가 지난해 8월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와 함께 설립한 몽골 최초의 기독교병원이다. 박관태 선교사는 2001년부터 해외 의료봉사를 시작 했다. 지금까지 30개국에서 3000회 수술을 한 바 있다.

문의: 010-2277-6563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11월 26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 장소: 서빙고 시온홀(B2)
대상자: 9월 1일~11월 4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박현수	관악금천 손민정 전석순 이민식	동작 김성미 황호경	서빙고 정금영	양천 김 훈 임현진 이옥수	용산 정영자	일산 구현진 이윤아	한강 송승곤 천기윤
강서 김육재 양경미 이선영 오진경	광명 카 사	마포 박나희 배호태 장혜림 정윤주	성동광진 차혜영 홍서봉 홍난이 황선영	여의도 백승환 박은실	이수 장동명 조연진	중종로 김성현 정명숙 조은미 채 연	S브릿지 박신영
강촌 김영석	동대문중앙 이경근 최순화 강복순	서대문 배윤희	신용산 김희재 조솔로 이재용 안성자	영등포구로 김정미 김승태 이용선	고성미 고현아 김윤자 정하니 조성창 최형문	천양사역 장 미	
고양은평 김유애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고국을 떠나 선교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공동체별 성탄선물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지의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분주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 가운데 고국에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성탄선물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다음 세대 다문화 선교의 훌륭한 인재가 될 선교사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성탄선물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작은 선물이 선교사 자녀들의 가슴에 사랑과 관심의 기억으로 남아 장차 그들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1. 선물 준비 방법

- 1)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주관해서 다락방(순)에서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 3) 편지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쓰고,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 편지에는 반드시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해서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 준비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실용적이고,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⑤ 해외 송금보다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11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 자녀는 고3 및 12학년(1999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 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 수와 연령 확인 필요):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모자,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시고, 사용하실 경우 보안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용어와 보안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리더십 분들에게 메일로 안내드렸습니다.
- 2) 보안지역 안내
① 공산권
② 이슬람권
③ 힌두교권
④ 불교권
⑤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음)의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단 예수전도단(YWAM)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음)의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단 예수전도단(YWAM)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4. 문의

2000선교본부: 최취준 간사
02-3215-3208, abc12@onnuri.org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나 우체국 대표 전화 1588-1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2-794-1063
비전빌리지 훈련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1길 54번지	02-796-9700
더멋진세상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4길 9, 5층 501호(라이온스빌딩)	02-2271-2246
바울 선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58길 20 2F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6(가락동,한일빌딩) 선교제일교회 4층 401호	02-402-2062
중국복음선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5번지	02-778-3626
BEE KOREA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Cornerstone (모퉁이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 우체국 사서함 8호	02-796-8846
FMn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 오션빌딩 3층	02-848-6251
GBT 선교회	경기도 안양시 안양판교로 20 신한대뷰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25	02-2653-4270
GMP 개척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GO 선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	041-852-1040
GP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070-4006-5300
Inter-Cp 선교회	서울특별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70-4352-6510
OM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정자동) 현대빌딩	031-698-2372
O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연빌딩 2층	02-455-0261
SEED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9길 68 202호	02-521-0791
UPMA 선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층	02-815-4052
WE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남11길 7-1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02-322-0563
안산M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031-491-9650

선교사가 보낸 편지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땀 흘린 지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 마음 졸이고, 때로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작은 아이가 네 살 되었을 때 이 땅을 밟았는데 지금은 사춘기 소녀로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무릎과 두 손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아웃리치를 다녀가신 공동체가 있

습니다. 의약품, 의류, 식량 등을 풍성하게 준비해 오셔서 나눠주셨습니다. 한국 마켓이 없는 이곳은 한국 제품이면 무엇이든 귀합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을 맞이한 듯 기뻐 보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네 식구가 둘러앉아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는데 지금은 두 봉지를 끓여 먹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손이 커졌다고 놀리곤 합니다.

방문하신 아웃리치팀과 함께 시골에 갔었습니다. 평소에는 왕복 8시간 걸리는 거리를 긴장하며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갔더니 참 기뻐했습니다. 현지 친구들은 정성껏 손님을 맞이해주었습니다. 잠자리, 음식, 언어가 불편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시간이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아웃리치팀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우리 부부가 다시 그 시골마을로 들어갔었습니다. 아웃리치팀의 흔적이 여전히 그곳에 감동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어서 그런지 웬지 마음 한편이 행해집니다. 함께 무

릎 꿇고, 함께 찬양하면서 밟았던 그 마을 골목이 겨울바람과 함께 시림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 허리를 돌려 봅니다. 지치고 외로운 길에 등불을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공급함으로, 때로는 함께 걸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닦아줌으로 곁에 계셔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늘 아버지와 중보기도로 무릎 꿇는 동역자들로 인해 오늘도 우리 가정은 달려갑니다.

/ 다니엘 선교사(동아시아 B국)

덕분에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중간지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만이 고난의 증인을 합당하게 하고, 겸손만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자원해서 섬기는 기쁨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2~3절).

이것은 영적 지도자의 두 가지 겸손을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양 떼를 섬기는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해야 합니다. 영적인 겸손의 건강지수는 자원함에 있습니다. ‘억지로’라는 단어 속에는 의무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감이라도 있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훌륭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의무감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의무감을 넘어서는 것은 기쁨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책 때문에, 체면 때문에, 법과 제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넘어서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어떤 본능적인 이익이 아니라 섬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의무감을 넘어서 즐거운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영혼에게는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는 기쁨입니다.

온누리M미션을 섬기고 계신 노규석 목사님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안산M센터에서 차량이 필요해서 온누리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성도님 한 분이 기쁘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작은 한 문장의 광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원해서 섬기는 그 성도의 헌신이 하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 그분은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교회공동체의 이익이 없어도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겸손한 영혼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양 떼의 모범이 되라

둘째, 하나님의 양 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 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동원 목사님으로부터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남한산성에 계시던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용조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목회 노하우와 기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말하기 전에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일수록 억지로 합니다. 선한 일일수록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본성은 하고 싶은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잘 하게 합니다. 때로는 해롭고 무익한 일인데도 자원함으로 잘 합니다. 교만한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면 그 모습을 본으로 삼아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권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선한 일일수록 자원하고, 선한 일일수록 즐겁게 하고, 선한 일일수록 모범이 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는 일에 발 빠르게 자원하면서
선한 일일수록 즐겁게 행하지 않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무서움을 깨닫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생활이 깊어질수록, 교회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故 제승모 형제를 기리며...



김경 권사
(창조과학 선교팀)

“사람이 무엇이기
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
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경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 7:17~18).

지난 11월 5일 주일
이른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울음 섞인 소

리 때문에 못 알아듣기도 했지만 도저히 믿기
지 않는 소식에 몇 번이고 되물었다.

“승모가 어쩔다고?”

제승모 박사가 천국에 갔다는 소식이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바로 전날 나는 제승모 박사와 함께 청소년 일일 창조과학세미나를 섬겼다. 그날 사역자들과 함께 저녁식사 교제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날 밤 제승모 박사는 잠을 자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다. 이제 38살밖에

안됐고, 결혼한 지 2년도 안된 젊은 형제였다. 그 형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창조과학 사역을 함께 섬기던 우리들을 뒤로 하고 천국으로 갔다. 급히 찾아가던 영안실에서 바로 전날 환하게 웃던 승모 형제를 영정 사진으로 만날 수 있었다. 지금도 악몽을 꾸는 것처럼 믿기지 않는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 그의 신실한 삶을 사랑했기에 아픔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승모 형제의 짧은 삶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승모 형제는 작은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승모 형제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다. 대학에서 늦은 시간까지 힘든 연구에 집중해야 되는 삶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았다. 연구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찾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수요예배와 금요철야예배를 타 교회에서라도 반드시 드렸다.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다. 주일에는 늘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

고 다른 지체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창조과학팀 모임을 준비했다. 사역 준비에도 헌신하면서 매 순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또 승모 형제는 항상 겸손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승모 형제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다. 승모 형제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고, 생명과학 박사이자 서울대학교 연구교수다. 자랑할 만한 학력에도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자신이 위로 올라가려고 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삶의 최우선 순위였다.

승모 형제는 용감한 사자처럼 담대한 삶을 살았다. 자라나는 차세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님의 용사로 키우기를 소망했다. 10여 년 넘게 꿈땅 교사와 코치로 섬겼고, 창조과학사역에서도 어린이사역을 부르심으로 알고 열심히 섬겼다. 승모 형제가 늘 외

치는 말이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승모 형제는 힘든 일에도 늘 자원하고 불평 없이 섬겼다. 육체는 연약했지만 그의 생은 바람처럼 불처럼 강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간 지금도 그 힘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영성을 깨우고 있다.

하늘나라로 가기 전날도 승모 형제는 복누리 비전센터에서 종일 미래창조과학스쿨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과 그 능력을 선포했다. 그날 어린이들에게 창조의 진리를 전하고자 했던 열망 가득 했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보고 싶은 승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 모두 괜찮아요. 이제 당신처럼 이해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에 우리를 맞추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게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리온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당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차세대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분당 5층 미션다락방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Peace 302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국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국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 / 네팔

어 주일 9:00 302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당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병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8-9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단원모집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준비: 찬송가 1곡(자유곡)

문의: 산용환 총무(010-8695-8341)

한국어선교학교 제3기 수강생 모집

일시: 12월 2일~18년 2월 3일(매주 토 오후

5시 30분~오후 9시)

장소: 도곡캠퍼스 온유희

문의: 차춘근 팀장(010-3290-4506)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계약직(서빙고 한식당 조리사 및 조

리원, 양재 커피숍 직원, 양재 건축/

인테리어 담당자)

자격: 세례교인, 경력무관(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접수: bible81@onnuri.org

문의: 총무팀(02-3215-3102)

제4기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일정: 12월 3일, 10일 8:20~10:00

장소: 서빙고 신관 402호

문의: 최지완 간사(02-3215-3220)

예수사랑부(서빙고) 드림연주자 구인

시간: 주일 오전 11시(한동을)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이힐(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희(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수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장형식 총무(011-515-6174)

대청어머니기도

CGNTV

CGNTV 특집 다큐멘터리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

1989년 11월, 기적처럼 무너진 베를린 장벽
독일 통일은 자유를 갈망했던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독일에서 평화통일의 길을 찾아봅니다



“독일 통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고,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자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 신학자(튀빙겐대학교 명예교수)



“독일 통일의 과정을 지켜보면,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네스 루트비히 국무장관(통일 당시 동독 경제부)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기적입니다. 독일 통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습니다.”

월터 뮐퍼(통일 당시 베를린 시장)



“사람의 힘으로 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양쪽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막을 수는 없다는 믿음을 한국인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드로거 주교(독일개신교협의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기도하며 통일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방송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

